

신세계백화점, '헬스케어 대전' 6월 11일까지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6월 11일까지 강남점 이벤트홀에서 '헬스케어 대전'을 진행한다. 바다프랜드·오쌈·디코어·오레스트 등 안마의자 브랜드, 프리미엄 운동기구 테크노점,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렘, 마사지기 브랜드 브레오 등이 참여한다. 디코어 안마의자 구매 시 눈 마사지를, 오레스트 안마의자 구매 시 발 마사지를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4분에 OK”…농심, ‘신라면건면사발’ 출시



농심이 2019년 라면시장 최고의 히트 신제품인 신라면건면을 용기면에 담은 ‘신라면건면사발’을 출시했다. 맛있고 깔끔한 신라면건면의 매력은 살리면서, 더 가볍고 간편하게 만

들었다. 신라면건면사발의 열량은 285kcal이며, 조리시간은 봉지라면보다 30초 짧아진 4분이다.

농심은 끓여 먹는 봉지라면과 달리 뜨거운 물을 붓는 용기면이라는 조리법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잘 익으면서도 건면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하는 것이 제품 개발의 핵심이다. 청양고추를 추가해 매운맛을 살렸고, 소고기와 표고버섯 등 재료로 감칠맛을 더했다.

원성열 기자

드롱기 코리아, 로스터 협업 커피 원두 3종 선포



이탈리아 커피머신 브랜드 드롱기(De'longhi) 코리아가 커피 원두 3종(사진)을 출시한다.

드롱기의 새로운 커피원두는 2019년 국제 아로마스터 챔피언십에서 1등을 수상한 김사원 로스터(에이쓰리바우트커피의 대표)와의 협업으로 선보인다.

선보인 커피 원두는 드롱기 스페셜 블렌딩 오피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랑구르 등 3종이다. 오피모는 묵직한 바디감과 다코초콜릿 향이 잘 어우러져 중후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췄다. 콜롬비아는 오렌지, 너트, 캐러멜, 초콜릿의 풍미를 담아 적당한 블랙커피를 즐기는 이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원두이다. 인도네시아 랑구르는 묵직함과 중후함을 가져 이국적인 향신료의 향과 부드럽게 감싸는 목 넘김, 긴 여운이 일품인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원성열 기자

이베이, 오늘부터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

이베이코리아는 19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G마켓과 옥션, G9에서 동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2만여 곳의 스토어가 참여하고, 특가 상품만 19만 개에 달한다. 멤버십 스마일클럽에 제공하는 ‘20% 할인쿠폰’은 최대 30만 원, 3만 원, 1만 원 등 총 3종이다.

일반회원은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되는 ‘15% 쿠폰’을 준다. 스마일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 달 무료이상을 신청할 경우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선 고가 가전을 비롯해 명품, 패션,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특가에 판매한다. 스마일클럽 회원 전용 온오프라인연결(O2O)서비스 ‘픽업데이’도 선보인다. 편의점,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전국 2만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 제품 박스를 픽업해 가져가는 서비스다.

김태수 이베이코리아 영업본부장은 “쇼핑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판매자와 고객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동원F&B, ‘츄슈닷컴’으로 반려동물 시장 공략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펫 전문물 ‘츄슈닷컴’(사진)을 오픈했다.

‘츄슈닷컴’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사료, 간식, 장난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펫 전문몰이다. 츄슈닷컴에는 동원F&B의 프리미엄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과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뉴트림’ 등 국내외 48개 펫 전문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동원F&B는 식품 전문 온라인몰인 동물몰을 통해 펫푸드를 판매해왔으나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펫 용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츄슈닷컴’을 새롭게 오픈하게 됐다. 앞으로 전문적인 펫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ujin22@donga.com

이슈 | 정부 규제·코로나19에 갇힌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 11개월만 최저

(4월)

4월 심리지수 전월보다 7.6p 하락
경기·인천 ‘풍선효과’도 빠르게 식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의 ‘2020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1로 나타나, 전월(107.0) 대비 3.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국토연구이 전국 152개 기초자치

단체의 부동산 중개업소(2338개소)와 일반가구(668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이다.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이보다 높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 8월(10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도 102.2를 기록해 전월 109.8 대비 7.6p 내렸다. 지난해 5월(98.6) 이후 최근 11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몇 개월간 금등세를 나

탄낸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억제하자 경기·인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부동산 금등세를 유발하는 ‘풍선효과’도 4월 들어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05.4로, 전월(120.9) 대비 15.5p 줄었고, 인천 지역도 같은 기간 117.4에서 109.7로 7.7p 감소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이재용 부회장 중국 출장…글로벌 행보 재개

중 시안반도체 사업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의 출장은 올해 1월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캄피나스 공장을 찾아 중남미 사업을 점검한 지 100여일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인 중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업계

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 낙관하지 않은 환경에서 핵심 미래 사업을 직접 챙기며 위기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안 사업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로, 이번 출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도 함께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후 멈췄던 글로벌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18일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이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 |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카폴 서비스 등 유망 사내스타트업 4곳 분사

현재까지 53개 선발·16개 분사 성공
국내외 다양한 스타트업과 협업 지속

현대차그룹이 육성한 사내스타트업 4곳이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현대차그룹은 ‘마이셀’, ‘PM SOL’, ‘원더무브’, ‘엘엠캐드’ 등 유망 사내스타트업 4개사를 이번 달 분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부터 사내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유망 스타트업 기업 53개를 선발 및 육성했고, 올해까지 총 16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분사했다.

이번에 독립한 ‘마이셀’, ‘PM SOL’, ‘원더무브’, ‘엘엠캐드’ 등 4개사는 2~4년의 육성 및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각각 특화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회사다.

‘마이셀(MYCEL)’은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친환경 소재인 버섯 균사를 기반으로 차량 복합재, 패브릭 등 소재를 개발하는 바이오 소재 기업이다. 버섯 균사는 수밀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소재로 군사 가족, 대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확장 적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PM SOL(피엘솔)’은 철분말 성형공정 중 발생하는 마찰력을 저감해주는 복합 윤활제와 3차원 제품 디자인을 구현하는 3D 프린팅용 금속 분말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고내열성과 고윤활성 물질의 장점을 결합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3D 프린팅용 금속 소재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항공, 발전, 의료 분야에 치중됐는데, PM SOL이 저가 고성능 금속 분말을 개발해 자동차 분야에 적용성을 확대했다.

‘원더무브(WONDERMOVE)’는 경로, 도착시간, 선호도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 직장인 대상의 커뮤니티 정기 카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서비스는 제한된 운행 시간, 횡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법 허용 범위에 속하며, 운행 데이터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 보험 지급을 보장한다.

‘엘엠캐드(ELMCAD)’는 기존 컴퓨터

이용 설계(CAD·Computer-Aided Design)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한 3D 도면 정보 솔루션 기업이다. 일반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3D 형상 데이터를 경량화해 제품 정보를 3D 상에 직접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미래 유망 분야의 신사업 기회를 탐색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내스타트업 육성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지속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BMW, 신형 5·6시리즈 월드 프리미어 한국서 진행

27일 BMW 드라이빙센터서

BMW 코리아는 BMW 5시리즈와 6시리즈 신형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를 27일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출시 모델의 세부 트림이 아닌 모델 시리즈를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는 것은 국내 수입차 역사상 BMW가 최초다.

당초 공개가 예정됐던 2020 부산 모터

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BMW 그룹 경영진의 한국 방문 당시 월드 프리미어를 한국에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BMW 그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BMW 코리아는 참가자의 안전 보장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BMW 드라이빙 센터 트랙을 활용한 비대면, 비접촉 행사로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BMW 더 뉴 5시리즈와 6시리즈 신형 모델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가 27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진행된다. 럭셔리 그란투리스모 더 뉴 6시리즈(사진). 사진제공 | BMW코리아